

현대복식에 나타난 그라피티(graffiti)기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Graffiti Techniques in the Contemporary Dress

김주영* · 이정후 · 양숙희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미국에서 뉴페인팅 형식으로 대두된 그라피티는 '억압된 것의 복귀'를 주창하는 포스트모던 상황 하에서, 모든 기호 형태들 중 가장 순수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었던 낙서의 에너지와 신빙성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1980년대에 본격적으로 주류에 합류되기 시작하였다.

그라피티 즉, 낙서는 원시시대부터 존재한 것이지만, 모더니즘 이후 구상미술의 복귀현상과 함께 현대미술의 주류에 편입되었으며, 미술 뿐 아니라 스케이트보드, 광고, 퍼포먼스 무대, 의상 등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그라피티 기법이 현대미술의 주류로 대두된 흐름과 복식에 미친 영향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그라피티 기법을 이용한 복식을 그라피티 룩(graffiti look)이라 정의하고, 그라피티 룩을 외적 형식과 내적 가치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을 중심으로 전개하였으며, 시각적 예증을 위해 미술관련 문헌과 의상잡지, 아티클 등을 자료로 제시하였다.

그라피티는 아동적 장난과 성인적 모욕에 의한 정치적, 쾌락과 분노, 재치와 외설, 팔림프 세스트(palimpsest), 상상, 글쓰기, 단순한 표시의 요소들로 구성되는 혼성현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당시 흑인 계층 지역에서 유행하였던 힙합운동 아래, 그라피티는 모든 읽고 쓸 수 있는 사회에 일반적인 교차 문화적 현상으로서, 비성격화된 공간을 성격화하고, 정체성을 제시하며, 개인적이지자 공공 관념의 공고한 확산으로서 작용하였다.

그라피티 예술가들은 도시의 벽, 지하철, 광고판 등의 공공시설을 넘어 의상에까지 그들의 캔버스로 이용하고 있다. 그 결과 현대 복식에 있어 그라피티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알리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인 동시에 유희적인 수단이 되고 있으며, 거리스타일이 캐주얼상으로 상향 전파됨에 따라 비주류와 주류의 경계가 와해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전형적인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그라피티 아트는 미국이라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되어 세계로 파생된 뉴페인팅의 한 형식으로서 구분할 수 있으며, 지하철 예술가(subway artist, sprayan artist), 장 미셸 바스키아(Jean-Michel Basquiat), 키스 해링(Keith Haring) 등에 의해 대표된다.

초기의 지하철 그라피티는 거리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표출하는 수단으로 본명 대신 별명을

태그(tag)로 사용하였고 한번 보면 즉시 인식할 수 있는 로고 형태로 다양하게 개발되어, '톱 투 버텀(Top-to-Bottom)' 방식, '버블문자' 형태, 와일드 스타일(wild style)을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해링은 무의해 보이는 기호들과 상징, 태그와 미키 마우스 등 만화 주인공을 회화에 도입하였으며, 현대사회의 금전승배, 전쟁, 신성모독과 문란한 성행위 등을 직접적으로 표현한다. 소수민족계 흑인인 바스키아의 그리피티는 거친 붓질과 다듬어지지 않은 드로잉으로 어린 아이의 그림처럼 미숙하고, 무의식적으로 그리피티를 한 듯한 설명적인 시적 표현의 원시주의와 세련됨, 즉흥성과 제어력, 위트와 야만성 같은 상충된 힘의 균형, 즉 양면가치를 찾아내는데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복식사에서 최초로 그래피티를 이용한 사람은 1920년대의 장 빠투(Jean Patou)였으며, 자신이 디자인한 셔츠에 모노그램을 인쇄하고 전시하였는데, 이러한 시도가 선전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음을 인식한 결과였다. 1938년에 스기야바렐리의 '천문학(astrology)' 플렉션은 별, 달, 해 등의 상징을, 1940년에는 쇼강핑크의 화살표 형상의 상징을 통해 환상적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1960년대에는 팝아트(pop art)의 영향으로 대중패션(mass fashion), 팝 패션(pop fashion)과 함께, 광고, 만화, 상표, 교통 표식 등 여러 가지 낙서나 글자 등이 도입되었다.

1970년대에는 진즈(jeans)가 확산되면서 그것과 가장 잘 어울리는 티셔츠가 나타났는데, 여기에 슬로건, 메시지, 소속 등의 문자를 프린트하기 시작하였으며, 1980년대에 와서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탈 중심, 탈 장르, 개방화 현상으로 기호와 추상적 형상, 원시적 아동적 형태 등이 패션에 도입되었다.

그래피티에 있어서 기호는 전달매체인 동시에 외적 형식이 된다. 그래피티 룩은 기호론의 기초를 구축한 미국의 철학자 피어스(C.S.Peirce)의 구분에 의해, 그래피티 아트에서 사용되는 기법이나 도형, 그림 등의 도상(icon), 그리고 문자, 숫자를 비롯한 지표(index), 마지막으로 라벨, 로고, 암호 등의 상징(symbol)과 같은 기호로 나타나는 외적 형식이 나타났다.

돌체 앤 가바나(Dolce & Gabbana), 스텐판 스프라우즈(Stephan Sprouse), 튀글러(Tierry Mugler), 겐조(Kenjo), 시라하마(Ritsuko Shrahama) 등이 불연속적인 지표와 상징, 도상을 결합시킨 그래피티 복식을 제안하였다.

그래피티 룩의 내적 가치는 첫째, 힙합문화의 표제 아래, 자본주의로 인한 소외와 인종 차별로 인한 정체성의 표현과 반달리즘, 소비문화와 과학문명, 핵으로 인한 전쟁과 대량학살, 인간성 상실을 고발하는 휴머니즘 등 개인과 나아가 사회, 정치적 풍자성으로 표출되었다.

힙합문화의 그래피티외에 브레이크 댄싱을 추던 B-boys, flygirls들은 "스프레이를 뿌린(spray on)" 소녀용 바지들, 잘려진 셔츠, 배기 쇼츠의 소년용 바지를 착용하였다. 한편, 1980년대 후반 약 22세에서 28세 사이의 언더그라운드의 청년문화를 겨냥한 '무명(nowhere)'의 문화적 배경을 가진 거리 디자이너들은 음악, 예술, 비디오라는 청년문화의 3요소를 통합시키고 있으며, 티셔츠, 진단, 스케이트보드, 지하철 차량, 스프레이캔은 표현을 위한 중요한 매체가 되었다. '보도위의 서퍼' 스케이터는 고가의 로고가 새겨진 그래픽 'Box fresh'를 선호하였으며, 의복 뿐 아니라 스케이트 보드 위에도 그래피티를 통해 정체성을 표출하였다.

거리스타일에서 출발한 그래피티 룩이 상향 전파됨에 따라 캐워크의 디자이너를 험넷(Katharine Hamnett), 존슨(Betsey Johnson), 스프라우즈(Stephan Sprouse), 그리고 모

스카노(Moschino) 등도 역시 그래피티의 반달리즘적 요소를 차용하여 메시지 전달을 위한 직접적 문구나 상징물을 통해, 특히 정치 사회적 이데올로기, 빈부와 환경 문제, 전쟁반대 등을 풍자한다.

둘째, 그래피티 측은 만화, 유머스런 기호와 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복잡한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의외성의 유머를 수반하는 우스꽝스런 복식을 통해 정신의 긴장을 풀고 인간의 순수한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게 하는, 현실도피와 자유의 감정의 유희성을 표출하였다. 유희적 그래피티 기법을 이용하는 대표적 디자이너로는 카스텔바작, W. & L. T., 모스카노, 코니쉬 등이 있다.